

## 單子的 個我論(上)

韓稚振

「本記者가 알기까지는 如此한 單子的 個我主義의 思想은 朝鮮語로 처음 紹介되는줄안다. 本思想의 裡面은 以下論을 □하면 大概斟酌하려니와 只今이 論文은 本思想의 骨子만이라도 論함이 되지 못하고 다만 史的 考察의 一面에 不過하다. 如何間 本論文이 朝鮮 思想家에게 公開가 되야 이에 討論의 題目이 되고 其 討論에 從하야 나의 本思想에 對한 解釋을 不徹底하나마 發表할 機會가 오기를 바란다.」 (二六, 八, 一四)

사람의 思考作用의 傾向은 恒常歸一하려는데 있다. 이런 故로 무엇을 思考하야 斷案을 下한 其것은 恒常 普遍性 卽 歸一性을 表示 하는 것이다. 普遍化는 곧 一致化이다. 心의 傾向은 은이一致에 잇는 것이다. 그런데 一致를 求함에는 兩方面이니, 一은 極少方向이오. 他一은 極大方向이다. 過去의 自然科學은 前者方向을 取하였고, 哲學은 後者方向을 取하였다. 科學은 分析을 爲主하야 極少를 探하려는 새에 哲學은 綜合的 方法으로 極大를 求하였다. 이것이 科學과 哲學과의 分別의 重要한 條件이라 하겠다. 本文은 此兩方의 心理的 傾向을 史的으로 밝바 研究하야, 本題目인 單子的 個我思想을 樹立코 져한다.

古昔希臘의 「애탐」 論者들은 萬物의 構成分子되는 「애탐」 原文을 發見함에 成功했다 할 것이다. 그들에 依하면 所謂애탐은 아조 極少하야더 不可分的이며 宇宙萬有는 우리 生目으로 能見치 못할 無數한 이싸위 「애탐」으로 形成되였다 하였다. 그런데 「애탐」은 모두 形模와 □에 잇서 各異하나 그 性質上으로는 同類라 하였다. 이것들이 多數를 勿論하고 結合集團하야 凡物體成하며 其 結合性質의 如何에 依하야 各種의 物像이 되어 진다 하였다. 다시 말하면 同質的인 「애탐」들이 여러 種의 結合으로써 여러 種의 萬像을 形成하였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엇더케 그 애탐들이 互相結合하고 分離하는가. 古希臘 「애탐」 論者은 對答하기를 每年 「애탐」은(갈구리) 模樣으로 되야 自

然히 結合되기 易하다 하며 또한 보드럽고 或粗薄하게 되어 있는 「애탐」인  
故로 보드러운 놈은 보드러운 놈끼리 서로 서로 □를 合成한다 하였다. 卽  
同種은 同種끼리 合하고 異種은 서로 分離하다는 原理로써 萬物形成의 理由  
를 說明하였다.

近代 科學者의 單位的 原子說은 以上에 論한 古希臘 思索者들의 그것과 別  
異한 것이 업고, 다만 明細한 點畧 異하다 하면 異할 것이요, 進步했다 하면  
進步했다 할 것이다. 今日의 科學은 昔日의 原子즉 「애탐」을 한번 더 分析하  
야 電子로 縮少식혀스며 其 電子는 吸力拒力이란 兩種의 相反된 力을 包持  
하여 每電子 內에는 우리의 太陽系와 갖흔 運動系로 되어 가지고, 甚한 速度  
로 回轉하고 있다는 것 쏘이 新說이다. 電子들이 吸力과 拒力으로써, 集合하  
고 分離하여 萬物을 形成했다는 條件은 以前 애탐 論者들의 主張과 別異한  
것이업다.

大概 古希臘의 「애탐」論者나 今日의 電子論者나 宇宙萬有의 極少한 單位  
를 求한 點에서는 一般이다. 又是 宇宙의 構成單位를 物質的이라고 보본 點  
同一한것이다. 萬有의 成分子가 物質的인지라, 그것으로써 集合하여야된 萬有  
主體도 自然히 物質的이다 라고 斷言하게 되었다.

「뉴턴」의 萬有引力說은 以上과 갖흔 物質的 單子說의 原理의 上에 樹立  
한것이다. 無限한 時間空間 內에 正方形 距離比로 塊가 彼此引하고 拒하여  
運動한다 하였다. 卽 宇宙萬有는 三種의 分子로 構成하였스니 (一)時間 (二)  
空間 (三)互相吸引하는 塊가 是라. 이것은 實로 普通人이 가지고 잇는 意思  
와 셔남이 別無하다. 그러나 엇더케 兩公의 物體가 아모것도 업는 空間을 通  
하여 서로 吸引하며 光갖흔것을 發射할가하는 難關은 興味잇는 問題이다. 이  
것을 解하기 爲하여 「뉴턴」은 無極인 空間에는 所謂 「이터[에터]」라는 媒  
介로써 恰 차게 잇다고 假定하였다. 그러면 엇더케 그 恰찬 空間에서 物體가  
運動할수 잇슬가 하는 것이 쏘 難通點이다. 더구나 「이터-」라는 것이 엇더  
케 光을 轉할가 하는 것이 一大宿題로 되어 잇다. 뉴턴 以後學者들은 여러  
가지로 研究해 내이기를 「이터-」는 透明的이요. 摩擦이 업시 能動하는 物  
質이라는 等자못 여러 가지로 解說하여 노왔다. 이러한 모든 學說은 「아인스  
타인」의 特殊 普遍的 相對性原理의 發現으로 大打擊을 맞았다.

나는 以上の 單子論에 對하여 具體的으로 批判을 하지 못함은 좀 遺憾인줄  
안다. 其 評論은 後日을 企할 수 맞게 업다. 思唯컨대 以下の 論述만이라도  
보면 記者의 立地를 大綱알듯하다.

以上과 갖흔 物質的 單子論에 相對로 精神的 單子論이라할 單子□論이 잇  
스니 이것이 恰 記者가 根本부터 論示하고자 하는 것이였다. 記者씨는 이 單

子論이 眞正한 單子論이라고 밀이 말해둔다. 여기에 使用한 單子の 뜻은 極少한 單位이면서도, 極大한 單位인 것이다. 이것을 例하야 說明하면 凡生命의 種子와 갓흔 것이니 비록 一介의 적은 芥子種이나 其 質的으로는 全芥子種의 經驗을 生産할 수 잇는 偉大한 動力이다. 다시 말하면 量的으로는 極少하나 質的으로는 極大가 된다 함이다. 이 質에 極大야말로 그 芥子種의 生命 일 썬 안이라. 全宇宙의 大生命이 其裏에 反射하고 잇는 것이다. 吾人은 이 單子論의 思想을 本紙에서 圓滿히 闡明하기 不可能이다. 單只 其梗概만이라도 陳述하면 如下할 것이다.